

지역 매아리

고창군, 쌀고정·발농업 직불금 175억 조기 지급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통상 12월에 지급하던 직불금을 5일부터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쌀·밭 직불금은 올 6월까지 대상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토양검사, 농약잔류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창형 쌀소득 보전직불금은 관내 7738농가, 1만3270ha에 대해 139억원, 발농업직불금은 8483농가, 7789ha에 대해 4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단가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경우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각각 ha당 107만6416원, 80만7312원이다. 발고정직불금의 경우 진흥지역은 ha당 70만2388원, 비진흥지역은 ha당 52만7204원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쌀·밭 직불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태풍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아토피 환자 위한 예방관리사업 '큰 호응'

정읍시보건소가 아토피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은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토피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방관리수칙의 실천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의 아토피 피부염(120)으로 진단받은 대상자에게 아토피피부염 상담과 의료비, 보습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2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셋째 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아토피 질환자와 가족 20여 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아토피 예방 교실은 아토피 이론과 케어 제품 만들기 실습(비디로션, 천연 속성 비누, 천연 샴푸, 천연 세탁제 등 만들기), 원예치료(스파트리플 수경재배, 마란다 테라리움, 허바플라리움 만들기)로 구성되어 있다.

1인당 연 50만 원 한도의 의료비 지원과 보습제 지원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토피 질환의 예방·관리를 통해 아토피피부염 환자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물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정읍시보건소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055-839-6139)으로 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희생과 아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읍 연지아트홀 평화의 소녀상, 모자와 목도리로 따뜻한 겨울나기

평소 정읍의 독립운동역사와 동학농민혁명 등 남다른 역사 인식과 관심을 보여준 유진섭 정읍시장이 5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유진섭 시장은 이날 오전 연지아트홀 옆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동상을 닦고 주변을 청소하는 등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 시장을 비롯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정읍시민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이자 소녀상을 조각한 김용원 조각가와 직원들은 평화의 소녀상과 그 일대를 청소했다.

또, 소녀상에 모자를 씌워주고 목도리를 돌려주는 등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특히,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노란색 모자와 목도리를 돌려주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피해 할머니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정읍시 평화의 소녀상은 뜻깊은 청춘을 일본군에게 빼앗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기억하기 위해 건립됐다.

정읍시민 3천여 명의 뜻이 기금으로 모여 2016년 12월 28일에 건



유진섭 정읍시장(가운데)이 5일 오전 연지아트홀 옆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동상을 닦고 주변을 청소하는 등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립, 동학농민혁명군의 기상을 담아 의지에서 일어나 두 주먹을 불끈 쥔 당당한 소녀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한 주민은 "쌀쌀해지는 날씨에 앉아있는 소녀상을 보니 마음이 몽글하다"며 "하루빨리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아 평화를 염원하던 할머니들의 바람이 이뤄지

길 원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을 잘 관리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희생과 아픔이 후손들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내년도 국비확보 전력투구... 여야 국회의원 찾아 발품행정

권익현 부안군수는 5일 2020년도 예산심사에 본격 돌입한 국회를 방문한 여야 예결위원과 주요 현안사업별 상임위원 등을 만나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날 권 군수는 도총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동학농민혁명군이 최초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강령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혁명의 시작점이 된 백산대회 성역화를 위한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건의했다.

이어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이용호(무소속), 김광수(민주평화당), 정운천(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등 예결위원과 김종희(무소속) 국회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방문해 2023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와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직소천 수상·산악 파정활동장 조성사업, 장신배수지 건설사업, 동진 2단계 하수관로 사업 등을 당부했다.

또 2023 세계잼버리준비위원장이 이주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만나 2023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직소천 수상·산악 파정활동장 조성



권익현 부안군수가 5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예결위원과 주요 현안사업별 상임위원 등을 만나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다.

사업을 건의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발품행정을 펼쳤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예산실 류상민 심의관을 방문해 저출산 극복과 보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부안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부안군은 지난 10월 21일부터 국회사주관을 운영하고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방안과 신규사업 예산 반영

등 부처별 동향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투수가 타자를 상대로 모든 힘을 다해 공을 던지듯이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내겠다"며 "매력적인 부안,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휴양하며 건강 관리하는 '고창관 웰니스'

한국웰니스산업협회, 'K-웰니스도시' 힐링명상 분야에 고창 선정

고창군이 한국웰니스산업협회에서 선정한 'K-웰니스 도시' 힐링명상 분야에 선정됐다. 최근 관광의 흐름이 웰빙과 행복을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고창군이 이 분야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한국 웰니스산업협회가 고창군을 찾아 K-웰니스 도시 인증패를 전달했다. 올해 첫 지정된 웰니스 도시는 익산시를 시작으로, 고창군은 군단위 1호로 인증됐다.

'웰니스'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최근 웰니스 산업은 시장 규모가 크

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으로 2015~2017년 사이 평균 6.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K-웰니스 도시'는 유소년부터 실버세대까지 전 연령대가 웰니스 활동에 적합한 특화지역임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고창군은 선운산, 운곡탐사트르스지, 고창읍성 맹종죽림 등 천혜의 자연환경 속 명상 힐링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동호해수욕장 모래찜질, 석정온천 스파 등 도시인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 하는 명소가 곳곳에 포진해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콘텐츠와 차별화, 연계성 등으로 무장해 대한민국 웰니스 관광의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미코, 상호 협력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

부안군은 (주)미코가 개발한 2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을 옛 부안군수 관사에 설치해 실증 가동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SOFC 시스템은 연료전지 전문기업 미코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시스템으로 한국 가스안전공사 설계단계검사를 국내 최대 효율로 획득된 제품이다.

정격 발전용량 2kW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4~5세대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수소를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어 안전하며 반응과정에서 배출되는 열을 높은 온도의 온수로 활용할 수 있고 발전단기도 저렴해 차세대 에너지 생산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이번에 설치 및 운전 중인 SOFC 시스템은 군과 미코 간의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1kW급 건물용 SOFC 시스템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이다.

미코는 오는 2022년까지 SOFC 시스템의 운전 실증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운전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부안군은 SOFC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온수를 활용한 족욕장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옛 부안군수 관사 내부를 수소에너지 체험장으로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정부에서 올해 초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연료전지 시스템의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해 연료전지의 수용성을 높여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마무리 '분주'

정읍시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마무리에 분주하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주거환경이 낙후됨에도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제때 보수하지 못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해 국비 2억 5800만 원을 포함해 총 5억 1600만 원을 들여 총 177가구에 지붕개량, 도배·장판·싱크대·창호시설 등 교체, 화장실·보일러 보수 등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달 말까지 진행 중인 저소득 가구 보수공사를 완료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편, 내년도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내년 초 주거지 현지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사업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세대의 노후 불량 주택을 점검하고 보수해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겠다"며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promotional text, and contact information.